

# 캠핑, 물 만났네



장자늘 카누 체험.

## 캠핑 성지 '충주'



코로나19 확산 이후 타인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언택트' 여행으로 자리 잡은 캠핑은 엔데믹 후에도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캠핑인구는 2020년 기준 534만 명이며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수 요에 비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는 한정돼 있어 캠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캠핑의 성지'로 불리는 충북 충주가 각광을 받고 있다. 물과 산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충주는 친환경적이면서 최신 시설을 갖춘 목계솔밭캠핑장과 때문지 않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노지 캠핑과 차박의 명소인 수주팔봉이 있다. 이 두 곳은 충주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캠핑과 트레킹을 즐기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 ◇수주팔봉, 자연이 빚어낸 예술작품

#### 친환경 '목계솔밭캠핑장'·8개 봉우리 수주팔봉 노지·차박, 트레킹 명소... 일출·일몰 풍경 장관

목계솔밭캠핑장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수주팔봉은 노지 캠핑과 차박의 명소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곳으로 캠핑과 트레킹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꼭 한번 방문해볼 만한 곳이다. 수주팔봉은 8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으로, 그 모습이 마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팔봉의 이름은 '팔(八)' 자 모양으로 솟아있는 봉우리에서 유래했으며, 각 봉우리는 저마다의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산행을 통해 정상에 오르면, 발 아래 펼쳐진 푸른 물결과 그 주변을 둘러싼 울창한 산림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출과 일몰은 특히 장관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이 극대화되는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

수주팔봉의 산행은 비교적 난이도가 낮아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 봉우리까지 오르는 길은 잘 정비돼 있어 안전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으며, 곳곳에 마련된 전망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산행 도중 만나는 바위들은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어, 자연이 빚어낸 조각품 같은 느낌을 준다. 이 같은 자연의 경이로움은 수주팔봉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수주팔봉의 출렁다리도 압권이다. 두릉산을 오르면서 만날 수 있는 출렁다리는 연장 47.75m, 폭 1.7m로 발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따라 걷다 보면 아래로 조성된 폭포를 만날 수 있다.

깎아내린 절벽 아래로 물줄기가 쏟아지자 스트레소도 훌훌 날아가 버린다. 다리를 지나 전망대로 가는 길, 수주팔봉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풍경 포인트를 만날 수 있다. 어떻게 찍으면 잘 나오는지 뷰 포인트까지 안내판으로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니 이보다 더한 매력이 있을까.

수주팔봉의 주변 지역은 충주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트레킹,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특히 충주호를 따라 이어진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여행자들에게 인기다. 호수의 맑은 물과 그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며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경험은 충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이다. 또한, 수주팔봉 주변에는 작은 마을들이 자리잡고 있어, 농촌 체험이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충주시는 수주팔봉의 노후화된 편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이용객들의 편의에 힘을 쏟고 있다.



수주팔봉 정상에 오르면 발 아래 푸른 물결과 울창한 산림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 ◇목계솔밭캠핑장, 소나무 숲 속 힐링 공간

#### 168개 다양한 크기의 사이트 남녀노소 누구나 '맞춤' 충주호 인접해 경치 호젓...매점 등 편의시설도 갖춰

충주호를 끼고 있는 목계솔밭캠핑장은 캠핑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없이 매력적인 장소다. 이곳은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캠핑을 즐기는 내내 신선한 피톤치드를 마시며 자연과 함께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하고 있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진정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목계솔밭캠핑장은 충주시가 7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마치고 캠핑사이트 168개의 '명품 캠핑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친환경 우수야영장으로 선정됐다. 올해 7월 까지 5만 여명이 발길이 이어질 정도로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목계솔밭캠핑장의 가장 큰 매력은 충주호와 인접해 있어 맑은 물과 넓은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이 여유로운 분위기를 선사한다. 아침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저녁에는 석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천혜 환경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캠핑장은 다양한 크기의 사이트가 마련돼 있어 가족, 친구, 연인 등 모두가 즐길 수 있고 깨끗하게 관리된 샤워장과 화장실, 개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캠핑장 내에는 매점과 카페도 운영되고 있어 필요한 물품을 현장에서 바로 구입하고 간단한 식사나 음료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공동 취사장도 마련돼 있다. 특히, 가족 단위의 캠핑객들에게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밭과 다양한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아울러 가족단위 캠핑객을 위해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위해 'Happy Camper' 페스티벌 공연을 열고 있으며, 흑서기와 흑한기를 제외하고 매일 1회 다양한 축제를 열고 있다.



목계솔밭캠핑장

### ◇색다른 즐거움 '장자늘 카누체험'

#### 푸르른 자연 속 힐링+액티비티 동시에 만끽 봄 신록·가을 단풍... 호수 가로지르며 눈호강

충주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다양한 야외 활동으로 유명한 곳이다. 그 중에서도 장자늘에서의 카누 체험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수상 레저 스포츠다. 목계솔밭캠핑장과 함께 자리한 장자늘 카누체험장은 충주호는 넓고 잔잔한 수면을 자랑해 카누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카누 체험은 자연 속에서의 힐링과 액티비티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호수 위에서 카누를 타고 나아가면 주변의 산과 물이 어우러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며, 그 순간만큼은 도시의 번잡함을 잊게 된다. 특히 맑은 날에는 수면에 비치는 하늘과 산의 모습이 장관을 이뤄, 마치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카누 체험은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활동이다. 카누를 타고 호수를 가로지르며 서로의 호흡을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동심이 생기고, 함께한 이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카누 체험은 몸을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카누 체험은 특히 봄과 가을에 그 매력이 극대화된다. 봄에는 신록이 가득한 풍경 속에서, 가을에는 단풍이 물든 산과 호수를 배경으로 카누를 즐길 수 있다.

체험은 단순한 레저 스포츠를 넘어, 자연과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충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며,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체험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어보는 것은 어떨까. 충주의 카누 체험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한신협·대전일보·진광호 기자